



미 증시, 1 월 FOMC 의사록 안도감으로 전약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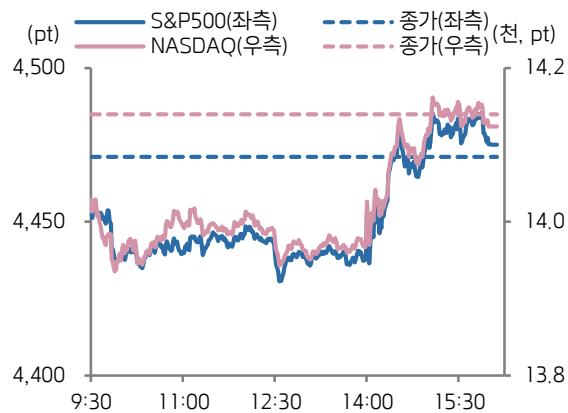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6 일 (수) 미국 증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재부각에 오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에 반등하면서 마감. 전일 러시아의 군대 철수 소식으로 미국 증시는 급등했지만, 우크라이나, 백악관, NATO는 철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 오히려 군사를 늘리고 있다는 뉴스플로우에 하락 출발. 다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경계감으로 S&P500 지수는 장중 0.9%까지 하락(나스닥은 -1.5%까지 하락). 하지만 의사록은 시장 우려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S&P500은 상승 전환하며 마감(다우 +0.16%, S&P500 +0.09%, 나스닥 -0.11%, 러셀 2000 +0.14%).

전일 브뤼셀에서 열린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스톤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긴장완화의 어떠한 신호도 보지 못하고 있다", "병력이나 장비 철수도 없다" 발표하며 전일 완화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부 되돌려짐. 이번 NATO 회담에서는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 오후에 공개된 1 월 FOMC 의사록은 인플레이션이 통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 외엔 3 월 FOMC 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이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증시는 안도. 특히 2 월에 발표된 고용보고서, CPI, PPI 등 주요 지표들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다만 의사록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전 긴축 사이클보다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편(likely warranted)"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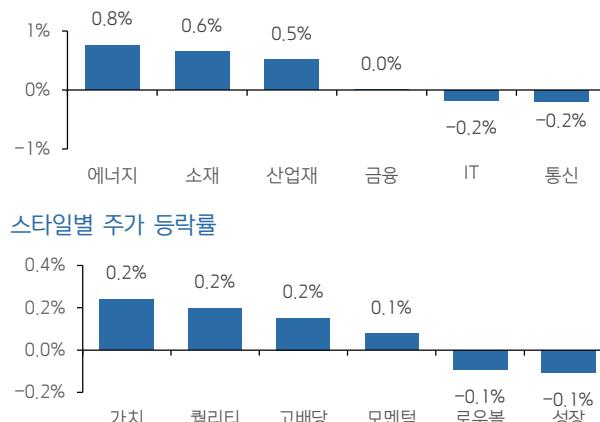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8%), 소재(+0.6%), 산업재(+0.5%)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0.2%), IT(-0.2%)는 하락. 성장주들은 쇼피파이(-16.0%), 로블럭스(-26.5%) 등 실적 발표 후 급락한 여파로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임.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0.1%)는 EPS 1.32 달러(예상 1.22 달러), 매출 76 억 달러(예상 74.2 억 달러)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차익실현 압력에 의해 장외로 1% 하락 중.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75.01	+0.09%	USD/KRW	1,197.56	-0.19%
NASDAQ	14,124.09	-0.11%	달러 지수	95.78	-0.21%
다우	34,934.27	-0.16%	EUR/USD	1.14	+0.15%
VIX	24.33	-5.33%	USD/CNH	6.33	-0.06%
러셀 2000	2,079.31	+0.14%	USD/JPY	115.45	-0.14%
필라. 반도체	3,555.69	+0.0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294.52	+0.53%	국고채 3년	2.320	-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02	-1.3bp
Eurostoxx50	4,137.22	-0.16%	미국 국채 2년	1.517	-6.1bp
MSCI 전세계 지수	717.81	+1.34%	미국 국채 10년	2.033	-1.1bp
MSCI DM 지수	3,054.26	+1.4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9.05	+0.71%	WTI	90.6	-1.6%
MSCI 한국 ETF	73.64	+1.16%	금	1870.3	+0.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7.2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장중 전해지는 뉴스 플로우

주요 체크 사항

2. 일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가 리오프닝주에게 미치는 영향
3. LG 에너지솔루션발 수급 왜곡 현상 해소 국면 진입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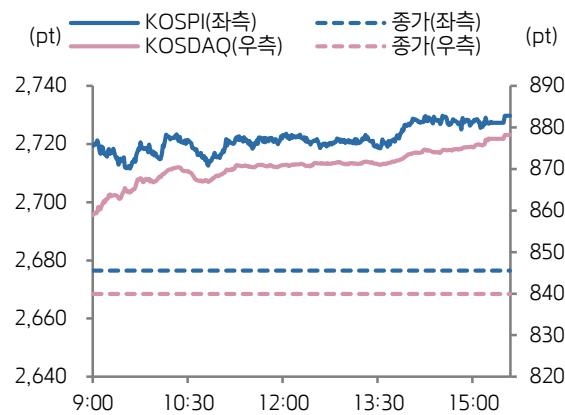
1 월 FOMC 의사록에 시장이 안도감을 느꼈던 것은 내용 자체는 매파적이면서도 상당부분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 의사록 내용에서 1)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2) 양적긴축을 상당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과 같은 매파적 정책 전환 예고는 1월 초 이후 증시 조정을 받으며 소화했던 내용이라고 판단. 3월 FOMC에서 50bp 금리인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연준의 연내 공격적인 금리인상 불안을 진정시켜준 것으로 보임.

또한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을 70 차례 넘게 언급했다는 점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 결국 인플레이션 경로에 따라 연준 정책 경로 및 증시 경로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 1 월 중국의 생산자물가(9.1%YoY, 예상 9.5%, 전월 10.3%)가 예상보다 급등세가 진정됐다는 점, 미국의 공급난은 12 월을 기점으로 피크아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향후 시차를 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세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 또한 미국 1 월 소매판매(+3.8%MoM, 예상 +2.0%)와 산업생산(+1.4%, 예상 +0.4%)이 서프라이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의 희박하다는 점도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한편, 러시아의 군대 철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국가간 의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유럽측은 러시아의 공식 철군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 이처럼 전쟁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 심리를 수시로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당사자들 모두 실제 전쟁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같은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고 판단. 당분간 관련 지정학적 뉴스플로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말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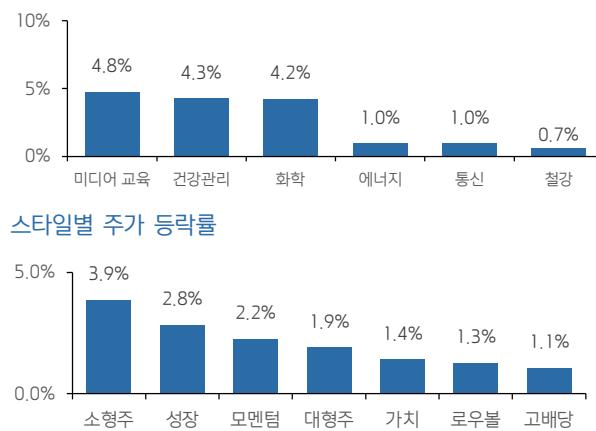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1 월 FOMC 의사록 안도감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전거래일 단기 폭등으로 일정부분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긴장 및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지수 상단이 제한되면서 업종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전망. 이와 관련해 엔데믹 진입 시나리오 진입을 언급했던 모더나 CEO 벌언처럼, 이미 한국 포함 주요국들은 일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증시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